

발간등록번호
53-3450021-000003-09



2017. 9. No.3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소식



제2회 폰카사진공모전 당선작 - 이선일(화창함과 화사함)



대구광역시북구의회
www.bukgucouncil.daegu.kr



통권 제31호 | 2017·9
CONTENTS

- 03 **인사말**
북구의회 의장
- 04 **의정활동**
 - 2017년 상반기 의정활동 현황
 - 2017년 상반기 회기별 처리내용
 - 2017년 상반기 주요 안건 처리현황
 - 2017년 상반기 구정질문 답변
 - 2017년 상반기 5분 자유발언
 - 2017년 상반기 결의문
- 16 **상임위원회 활동**
 - 2017년 상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 2017년 상반기 행정자치위원회 활동
 - 2017년 상반기 사회복지위원회 활동
 - 2017년 상반기 도시보건위원회 활동
- 24 **특별위원회 활동**
 - 2017년 상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26 **개인별 의정 활동**
 - 개인별 의정 활동
- 36 **포토 의정**



**책임의정을 구현하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 여러분과 함께 「일하며 섬기는 강한 의회」를 만들어 갈
북구의회 의장 하병문입니다.

구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출범한 7대 북구의회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3년 동안 소통과 화합을 의정방향으로 잡고 ‘책임의정 구현’ ‘열린의정 실천’ ‘현장의정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과 풍부한 역량을 쏟았으며 또한 지방분권을 위해 발로 뛰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흐트러짐 없는 초심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집행부와 화합하여
책임의정을 구현하며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행정·사회·복지·도시·보건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 제·개정, 지방분권개헌결의, 2017년도 업무보고, 현장방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북구의회소식 제31호’에서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구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친
북구의회 의원들의 열정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이번 북구의회소식이 구민이 북구의회를 이해하고 북구의회가 구민
들에게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소중한 소통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북구의회에 변함없는 관심을 구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하 병 문**

의정활동

2017년 상반기 의정활동 현황

● 총괄

조례안		기타 심의안건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기타
의원발의	구청장 발의	예산안	결의·건의안	동의·공유재산 등			
5	21	2	2	2	4	4	2

● 회기별 현황

회기별	회기(일수)	심의안건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	기타
		조례	기타			
구분	합계	26	6	4	4	2
제228회 (임시회)	2017. 02. 01. ~ 02. 10.		1	1		업무보고
제229회 (임시회)	2017. 04. 03. ~ 04. 11.	6	1	1	2	
제230회 (임시회)	2017. 05. 11. ~ 05. 22.	7	2			현장방문
제231회 (제1차 정례회)	2017. 06. 07. ~ 06. 30.	13	2	2	2	

● 조례심의 결과

구분	발의제출			심의결과				기타
	계	의원	구청장	계	원안	수정	부결	
계	26	5	21	26	19	7		
조례	제정	8	4	4	8	3	5	
	개정	17	1	16	17	15	2	
	폐지	1		1	1	1		

2017년 상반기 회기별 처리내용

제228회 북구의회 임시회
2017. 02. 01. ~ 02. 10.

심의안건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분 자유발언

- 윤은경 의원

제229회 북구의회 임시회

2017. 04. 03. ~ 04. 11.

심의안건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정질문

- 윤은경 의원, 김준호 의원

5분 자유발언

- 이영재 의원

제230회 북구의회 임시회

2017. 05. 11. ~ 05. 22.

심의안건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제23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7. 06. 07. ~ 06. 30.

심의안건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구정질문

- 이영재 의원, 이헌태 의원

5분 자유발언

- 김준호 의원, 이동욱 의원

2017년 상반기 주요 안건 처리현황

※ 2017년 상반기(228회 임시회~23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된 모든 안건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http://www.bukgucouncil.daegu.kr/> → 회의록 검색 → 상세검색 → 안건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북구청장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대구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북구청장

제안이유
우리 구의 캐릭터로 부키(BOOKEY)가 개발·선정됨에 따라 상징물의 종류에 이를 추가하여 관리하고, 부키(BOOKEY)를 특허청에 출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북구청장

제안이유
전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등 국가시책사업에 부응하고 우리 구 현안사업 추진과 민선6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북구청장

제안이유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등 국가시책사업에 부응하고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자
북구청장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설립될 (재)북구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대구광역시 북구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북구청장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고자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북구청장

제안이유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복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복구청장

제안이유

-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대구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
-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의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복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복구청장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구세의 감면 대상 및 요건을 개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안



제안자
복구청장

제안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대구광역시 복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복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복구청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2017. 1. 9)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규칙 등의 공포 및 고시방법을 정비함으로써 법 행정절차의 합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대구광역시 복구 지방 보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복구청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2017. 1. 9)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정비를 통해 법 행정 절차의 합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복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복구청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2017. 1. 9)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보증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정비함.

대구광역시 복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복구청장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확정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사회복지위원회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빌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북구청장

제안이유

아이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물 및장비의 관리위탁 규정과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변경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대구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북구청장

제안이유

태전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에 이바지 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제안자
이영재 외 12명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북구청장

제안이유

북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지적 재산권, 인증취득에 필요한 경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신생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의 참가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북구청장

제안이유

청소년시설의 증가에 따라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청소년 정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도시보건위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안



제안자
김상혁 외 5명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최근 4년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7021건에서 2013년 1만5455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에도 1만6370건으로 증가함 출처> 2015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2년~2015년 6월) 소음 관련 민원 및 처분 현황' 자료.
-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법이나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들간 더 이해하고 서로 조심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산을 유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함.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김준호 외 7명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성실납세자 및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등의 주차요금 면제 및 할인 범위 확대하기 위해 개정.
- 출산장려정책 지원을 위한 주차요금 할인을 위해 개정.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안



제안자

북구청장

제안이유

- 공동주택 입주자간의 참여를 통한 공동주택간 소통·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 조성과 더불어 참여형 실천 프로그램 등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자

김상혁 외 11명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區 차원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코자 함.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제안자

황영만 외 11명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난취약계층의 주택화재 등 재난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북구청장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북구청장

제안이유

- 기존의 「주택법」을 따르던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함.

대구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자

북구청장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구정질문 답변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강북보건지소 증축에 대하여

윤은경 의원(동천·국우동)

Q 현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경우 매년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는데, 북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강북주민의 경우 보건소와 거리가 멀어 민원처리 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큼니다. 현재 강북보건지소의 경우 장소가 매우 협소해 보건증 발급을 위한 공간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보건지소를 증축하게 되면 보건증 발급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지역적·심리적으로 분리된 강북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강북보건 지소의 증축에 대한 북구청의 견해 및 계획에 대하여

A 보건증 발급현황을 보면 작년에 강북지역에 일하시는 분들이 1만3천 건을 발급을 받았지만 강북지역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까지 오려고 하면 시간·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것이 현실임. 하지만 강북지역 보건지소는 처음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건강증진사업까지 추가로 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음. 그래서 보건증을 발급하려면 보건지소를 증축할 수밖에 없음. 우선 보건증 발급업무를 하려면 60평 정도 공간이 필요하고, 건축비하고 장비도입비하고 하면 8억원이 조금 넘음. 그리고 인건비가 매년 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북지역에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긍정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 사용 불허에 대하여

김준호 의원(태전2·구암동)

Q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은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와 관리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을 보면 인건비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A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에 대하여는 주·정차 단속업무를 맡아오던 종전의 기능직 공무원이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직공무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예산운영이 부합되지 못한 면은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림.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제반여건 감안과 현행조례 정비 등을 통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Q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받은 전출금은 언제 갚으실 계획인지?

A 2010년도에 30억원, 2013년도에 32억원으로 총62억원을 구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전출을 한 바 있음. 62억원에 대한 상황은 내년부터 추진계획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필요한 구비부담금 30억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임. 나머지 32억원은 향후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시, 일반회계에서 편성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Q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A 부족한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금년도 주차장 설치는 복현동 장미공원 97면을 비롯하여 4개소에 총292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이외에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지원 사업으로 운암지 주차장 140면도 조성 중에 있음.



제2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복구청의 대응과 하중도의 명칭 변경에 관해서

이헌태 의원(북현1·2동, 검단·무태조아동)

Q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공약한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우리구의 대응 방안은?

A 우리 북구는 어느 시·군·구 보다도 선도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앞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비해 우리 구는 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는 등 지방분권 시대의 도래가 우리 구 재도약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Q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도시재생 유형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역사권 정비형과 공유재산 활용형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부선 도심구간(대구역 - 달성네거리) 복개 입체개발에 대한 복구청의 견해에 대하여

A 우리 구는 이와 더불어 대구역과 대구콘서트하우스, 롯데 백화점을 잇는 경부고속철도 부지를 활용한 "0호"광장 복원과 강북 지역을 자전거 타기 좋은 명품도시로 조성하는 계획도 적극 검토하고 있음. 이 두 프로젝트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가시화될 정부정책에 따라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개진토록 하겠음

Q 하중도가 대구시민들이 즐겨찾는 대구의 핫플레이스가 된만큼 그 명성에 맞는 이름을 지어서 불러야 한다. 이에 대한 복구청의 견해는?

A 명칭변경 의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함을 말씀드리며 기본계획 완료이후('17. 9경) 대구시에 명칭제정 건의를 하여, 금호강의 관광자원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특성을 살린 이름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음



제2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팔거천 유지용수 펌프 설치와 복구 통합 정신치매센터에 관해서

이영재 의원(동천·국우동)

Q 복구청은 팔거천 3단계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를 하면서 유지용수 공급방안 포함되었는데 현재 복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유지용수 시설의 방식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은?

A 먼저 유지용수 1일 3만톤으로서 금호강물 1만톤, 팔거천 재활용수 2만톤을 혼합하여 흐르도록 할 계획이며, 수질 개선을 위해서 팔거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우·오수 분리시설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Q 팔거천을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유역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는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복구청의 견해는?

A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관계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음. 앞으로도,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수렴하여 홍수 시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평상시 주민들이 운동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하천공간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Q 현재 추진 중인 복구 통합정신치매센터를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와 통합정신치매센터 사업의 목적이 공통적으로 효율적인 치매관리임을 감안할 때 먼저 통합정신치매센터를 운영하면서 치매관리 노하우를 축적하면 향후 추진할 '치매국가책임제'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계단오르기 운동 활성화 관하여

윤은경 의원(동천·국우동)

계단 오르기 운동은 걷기 운동보다 칼로리 소비량이 두 배 이상 많아 다이어트에 좋고, 계단을 오름으로써 등 근육, 허벅지 근육, 골반 앞쪽의 근육이 발달하고 몸이 척추를 중심으로 곧게 뻗게 되어 척추와 고관절 건강에도 좋고, 관절염 예방 효과·심폐기능 강화·혈액순환 촉진·인체의 균형감각 향상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한 신체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전국적으로 열풍이 부는 계단 오르기 운동이지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깨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 동료, 가까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단을 오르며 마주치는 이들과 밝은 얼굴로 인사도 나누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계단 오르기 운동으로 우리 주민들 모두 건강관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청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청사 중앙 메인 및 좌우 측면 계단을 걷고 싶은 건강계단으로 만드는 것을 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서관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영재 의원(동천·국우동)

문화재단 설립,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을 추진한지도 벌써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공공도서관의 문화재단 위탁과 관련해서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잘 알지도 못할뿐 아니라 공감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의 입장은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할 경우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공공도서관은 행정주체가 책임지고 운영·관리 할 때 공공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총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공공도서관입니다.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정보형태에 대해 교육하는 등 사회의 지적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키는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공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대해 이러한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북구 구성원 모두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김준호 의원(태전2·구암동)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의 지금 부지는 처음 조성할 때와는 주변여건이 크게 변모하였습니다. 이미 소음피해, 주변 학교의 면학 분위기 저해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동시설주변에 주택밀집지역과 대단지 아파트인 760세대의 협성 휴포레 등이 올 하반기 입주 예정이어서 민원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을 동호동차량기지 주변으로 이전하게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어린이교통안전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변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과 함께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고 운전면허시험장 하루 방문객 시험인원 및 민원인 약 700여명과 공원 이용객 등 충분히 유동 인구를 확보하여 간이역 조성의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전 후적지에 대해서는 대구 공무원 교육원 유치나 혹은 3공단에 위치한 대구여성회관 이전 등 문화 및 업무관련 시 산하기관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정치적 여건이나 국정기조 등을 볼 때 지금이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의 최적기이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231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비전과 공약사업에 대하여

이동욱 의원(관음·읍내동)

배광식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5개분야 29개 사업을 공약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이 공약하였다고 모든 것이 금과옥조는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년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부적절한 공약은 수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공약을 많이 하고 빨리 달성하는 것이 반드시 선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구민들에게 물어보고 의견도 들으면서 구민들의 속도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약 이행률과 사업 추진이 미진한 대구 제3사업단지 재생사업, 힐링밸리(서리지) 조성 등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재정적인 고려나 구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임기 내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제231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개헌 논의의 최우선 핵심의제에 '지방분권'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펴기로 하였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서른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의 이기심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 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약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주민들의 산책로 등의 휴식공간으로 바뀌었으며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이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 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처지에 있다.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도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한 현실이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등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지방4대협의 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지방분권이 최우선 핵심의제가 되어야함에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아온 국회와 정치권이 대통령 권력을 자신들과 나눠 갖겠다는 중앙권력 내부의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에 국한하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은 중앙정부가 독점한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다시 돌려주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오늘날 지방분권은 세계적 화두이며, 추세이다. 우리는 지금, 지방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전 세계적인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력과 문화적 다양성'이 최고의 자산이며, 중앙집권적 획일적 사고보다는 지방의 다양성에 입각한 분권적 사고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서, 자유로운 창의력과 다양성에 입각한 민주주의의 확대와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적응하고 융성하는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하는 '절박한 국가의제'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협치를 하는 것이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은 지방자치는 '가면 쓴 중앙집권'과 진배없으며, '분권 없는 지방자치'는 허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 더 이상 비효율과 불평등을 낳는 낡은 시대의 중앙집권적 논리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기에 빠트린 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지방분권형 개헌만이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주권재민의 선진민주 국가를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 소명이요, 시대정신임을 거듭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다 음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도입을 요구한다.

셋째,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권리와 역할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성을 갖는 양원제 도입을 요구한다.

넷째,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다.

다섯째, 국민참여 개헌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전국시·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의 국회 개헌특위 참여를 요구한다.

아울러 각 정당과 대선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추진 의지를 명확하게 국민 앞에 밝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대선시기에 지방분권 개헌을 담보할 수 있는 대국민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2017년 4월 3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윤은경 부위원장

이성재 위원

의회운영 위원회

업무보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8회 임시회에서 의회사무국은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책임의정 구현, 적극적인 홍보로 열린의정 실천, 소통과 협력으로 친밀한 의회운영, 역점업무 추진 등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였다. 김준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2017년도 업무계획과 같이 의회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강열 위원



유병철 위원



이헌태 위원



신경희 위원

결산, 추경 예비심사 등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하였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다. 김준호 의회운영 위원장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전년도 예비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심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김준호
위원장





구본탁
위원장

행정자치 위원회

업무보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228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징수과, 정보통신과, 어울아트센터 등 10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주요 사업들의 내실있는 추진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부와 함께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 올바른 구정방향을 모색하였다.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집행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경희 부위원장



이성재 위원

결산, 추경 예비심사 등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서 6월 8일 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집행에 대한 질문과 여러 의견을 개진하며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6건

74,6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의 전원 합의로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은 기획조정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에서 “결산심사에 있어서 집행잔액 중심의 결산심사가 아닌 각 사업별 효과성·필요성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사업 중심의 결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와 의회에서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장방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제230회 임시회에서 CCTV통합 관제센터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자 북구통합관제센터를 현장방문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되고 잇는 옷골동산 인조잔디 축구장을 현장방문하여 스포츠 시설, 캠핑 등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레저타운 조성 검토를 제시하였고, 지역동호인 및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 할 수 있는 강북지역 구암배수장 테니스장을 현장방문하여 민간위탁 운영방안, 야간조명 설치비용 등 시설현황 및 운영현황을 보고받았다.



구암테니스장



북구CCTV통합관제센터



유병철 위원



이차수 위원



이동욱 위원



장윤영 위원



고인경
위원장

사회복지 위원회

업무보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8회 임시회에서 첨단산업과, 관광자원개발과, 도시재생과, 주민행복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평생교육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달성과 보완점에 대하여 질의하는 등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은 “복구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도 노력해줄 것” 당부하였다.



이헌태 부위원장

결산, 추경 예비심사 등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3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였고,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에 대한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집행에 대한 질문과 여러 의견을 개진하며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2건 25,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의 전원 합의로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은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보다 효율적인 집행방법과 예산낭비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강조하였다.

현장방문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제228회 임시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절차 및 시설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을 현장방문하여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처리용량, 가스 용량, 냄새 절감장치, 연간

처리비용 등 전반적인 시설현황을 보고받았고, 향후 시설의 증설 및 보완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 하는 등 살아있는 현장 점검을 하였다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차대식 위원

윤은경 위원

이영재 위원

김재용 위원



백종현
위원장

도시보건 위원회

업무보고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제228회 임시회 업무보고는 도시행정과, 도시안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교통과, 보건과, 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성과와 예산집행현황 등 내실 있는 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계획한 내용들이 잘 추진되어 복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강열 부위원장

결산, 추경 예비심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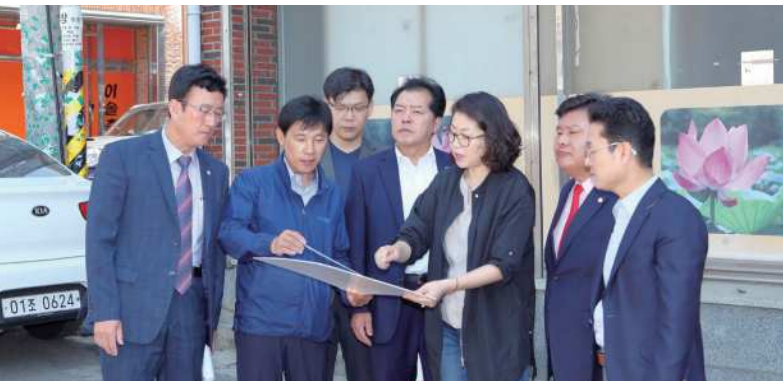
제231회 정례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행정과 등 9개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집행에 대한 질문과 여러 의견을 개진하며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1건 4,5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의 전원 합의로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다.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은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의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현장방문

제230회 임시회에서는 벤처창업 및 육성, 시민센터 등 다양한 복합공간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 랜드마크로 급부상중인 삼성 크리에이티브 캠퍼스를 현장 방문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수도권 창업인력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구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조성에도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읍내동에 위치한 말산공원을 방문하여 친환경모래놀이터 조성, 주민산책 및 쉼터공간 재조성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화장실, 정화조 등 공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친환경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말산공원



삼성크리에이티브캠퍼스



김상혁 위원



이승훈 위원



황영만 위원



김준호 위원



장윤영 부위원장



이성재 위원



이강열
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차대식 위원

이승훈 위원

이차수 위원

김재용 위원

결산 추경 등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서 6월13일과 6월14일 양일간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심도있게 진행하였으며, 또한 6월28일부터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국까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해당국장과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으며 종합심사를 진행하였다.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한 원안가결로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증액 20,000천원, 감액 74,600천원,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증액 72,800천원, 감액 25,000천원, 도시보건위원회에 대해서는 증액 31,300천원, 감액 24,500천원을 하여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총 증감액 124,100천원으로 수정동의 하여 2017년6월30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다.





하 병 문 의장(관문동 · 태전1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저희 지역구로 보면 상당히 복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중도를 연이어서, 또 매천시장 관련, 팔달들넉. 그래서 최근에 대구 시에서 하중도 개발 계획에 의해서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호지구에 최근 들어 인구가 15,000명 정도 입주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쪽에 제가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을, 어떻게 보면 경로당 이라기 보다 마을회관 위주인데, 주민들이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경로당이 곧 연이어서 준공이 다가오고 있고, 그 옆에 공휴지에는 주차장 부지로 해서 100대 가량 차를 댈 수 있도록 구청과 연계 해서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태전1동에 예전에는 어린이 주부도서관이라 불렀던 태전도서관과 두전경로당이 개관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 대구과학대 영송의료재단에서 200병상 규모의 세미급 병원도 들어설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 2017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 부광어린이집 개원식



이 동 옥 부의장(관음동 · 읍내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저희 관음동에는 명봉산이 있습니다. 명봉산에는 아직 화장실과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현재 근처에서 진행 중인 4차선 순환도로 공사가 윤곽이 잡히면 지금 협의과정에 있습니다만, 연말쯤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내동에는 팔거천이 있습니다. 팔거천이 다 조성은 됐지만 하수관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도 악취가 나는데, 이번 7월에 발주가 돼서 이제 공사에 들어가면 팔거천이 많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우리 칠곡에는 청소년들이 모이고 같이 대화하는 장이 필요한데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마침 읍내동에 읍내동 주민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을 83억을 들여 함께 건립하게 됐습니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5억이 편성됐습니다. 이 일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칠곡 신흥 읍내지점 개소식



김준호 의회운영위원장(대전2·구암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저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 하원에서 태전동으로 이전된 1990년대 초에는 우리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칠곡2·3지구 개발사업 등 도시화가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거주민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 큰 불편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당시와는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주변에 학교, 주택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여러 거주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던지 다양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주행 시험 차량이 도로로 나와서 주변에 교통체증을 발생시키고, 보행자 안전문제, 교통사고 발생 등 교통 관련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운전면허시험장을 현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병전우회 북구전우회 제1회 지역어르신 무료 급식



• 자유총연맹 북구지회 선린복지관 배식활동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대전2·구암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우리 지역주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는 첫째 옷골동산 개발 문제입니다. 옷골동산 개발은 오래 전부터 주민들에게 요구가 많았는데, 여태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지정돼있어서 개발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용도변경을 통해 문화공원 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올해는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야외공연장, 자연체험장, 야영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허가를 득해서 캠핑장을 만들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하중도와 구암동 고분군, 운암지, 함지산을 따라 옷골동산 캠핑장을 잇는 관광테마가 형성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구암동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둘째로 태전동 삼성아파트 뒤편 낙후지역에 공원 조성 관련 현안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정비요구가 많았고 우범지역으로 공원 조성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올해 국비를 받아 시니어 체험관을 짓고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관계기관과의 협의의 문제와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체험관 유치에 여의치 않으면, 일단 대구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 조성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북구 배드민턴 대회



• 태전도서관 현장방문



고인경 사회복지위원장(고성·철성·노원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몇가지 중요한 현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고성동 시민운동장 자리에 시민들을 위한 종합스포츠타운을 2018년에 완공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쉼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진행과정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증진센터 설치입니다.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을 대구시와 북구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필요성을 어필해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구 삼성창조경제캠퍼스가 조속히 준공식을 마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다 해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증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거리질서 캠페인



• 북구청장배 생활체육 프리테니스 대회



백종현 보건위원장(산격1·2·3·4동·대현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제가 산격 4개동과 대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구를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 폐공가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만큼 인구가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산격 4개동은 지금 연암 공원 때문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낙후된 동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공가가 많기 때문에 이 폐공가를 활용해서 소공원이라던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점으로 하되, 국가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녹색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국비사업으로서 100억이 소요되지만 국비 50%가 지원되고 우리 구비 25%와 시비25%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활력 증진 사업을 통해서 폐공가 활용한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과, 소공원 건립, 재건축 등 여러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도시보건위원회 현장방문



• 집행부와의 정책간담회



이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침산1·2·3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저의 지역구인 침산동은 지역을 대표하는 건강과 힐링의 장소인 신천과 오봉산을 주민들께서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오봉산 주변의 1동과 3동 일부 지역의 낙후된 곳에 대해서 환경 개선 사업이 시급하며, 특히 1동은 그 노후도가 북구 어느 곳보다도 심각하여 슬럼화와 공동화의 진행이 급속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곳을 산업과 주거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단지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재정비와 1종 주거지역의 용도변경 등의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은 더욱 침체되어 가고, 동네는 활력을 잃을 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여 집니다. 또한, 오봉오거리에서 성북교까지의 교통체증이 너무나 심각하여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대구시와 북구청은 근본적이고 조속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북구민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마당



• 북대구농협 주부대학



이성재 의원(고성·칠성·노원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저희 지역구에는 노원동, 고성동, 칠성동 3개의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노원동에는 3공단이 있어서 재생사업이 하루 빨리 이뤄져 쾌적한 공단이 됐으면 하고, 또한 노원동 천년나무 아파트에 1,580세대가 입주 예정에 있는데 곧 입주가 되어 인구가 늘어나는 노원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고성1가 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고성동에 환경 변화가 있었으면 하고, 환경개선사업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칠성동은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야시장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시행이 빨리돼서 칠성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과 시장을 운영하는 분들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지역구에는 3공단이 있어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쓰레기 수거 문제가 현재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고, 구청에서도 꾸준한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구수산도서관 현장방문



• 북구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김상혁 의원(침산1·2·3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저희 지역구에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침산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을 잘 정비해서 주민분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 “3억원에” 침산공원, 침산정 주변 경관 개선사업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침산공원에 손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민분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산공원에 물놀이장을 만들려고 작년 연말에 예산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내년도 시 예산 4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차장을 만든 후에 물놀이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침산공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는 아직도 주변에 낙후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유치해서 타 동, 타 구에서 저희 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든 후에 대구시나 구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면 침산공원 주변 환경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찾아가는 지방분권 토크 콘서트



• 행복누리 복구 비엔날레



유병철 의원(산격1·2·3·4동·대현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중요한 현안으로는 저는 3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요. 먼저 지난 4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 경북도청 후적지 문제입니다. 도심공원을 중심으로 문화, 경제, 기술이 융합된 융합형 도시혁신지구로 결론이 났는데요, 괜찮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개발 속도가 되겠죠. 현재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대구시의 욕심,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이해가 조금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견들을 좁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거고요. 저로서는 우리 복구청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저는 도시재생 쪽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당골과 태전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대현동과 고성동에 올해 도시활력증진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새롭게, 정말로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선정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붙어서 일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 복구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차 대 식 의원(산격1 · 2 · 3 · 4동 · 대현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우리 지역 현안사업은 연암공원과 대불공원이 있습니다. 이 주위에 산책로 정비를 많이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단지 주변 녹지대 및 지역 환경개선, 연암공원 주변 주차장과 차량 통행 개선을 해야하고, 시청별관 담장을 일부 철거해서 주민들이 드나들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구암서원 입구 도로를 확장하고 동대구시장과 산격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청년몰 사업 운영 개선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격종합복지관, 가정사회 복지관과 같은 봉사전문기관을 더욱 더 지원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라나는 영유아 보육료와 어린이집 지원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지원, 초중고 교육복지확충사업, 대현도서관 운영지원, 경로당 지원과 노인 돌봄서비스, 노인요양시설 보강, 장애인활동 지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시설 지원에 최대한 힘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북구어르신 행복축제 노래자랑 한마당 잔치



• 제17회 어른사랑 효큰잔치



이 차 수 의원(북현1 · 2동 · 검단 · 무태조야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지금 현재 검단동 고속도로 복편 금호폴리스 개발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앞장 서야하고 또, 북현동 공항교 밑에 하천 부지에 아시다시피 북구를 지역에는 어린이 물 놀이터가 3군데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대구시와 절충해서 아양철교 밑에 어린이 물 놀이터를 하나 만드는 것을 최고 주안점으로 보고, 특히, K2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보상 범위가 좁은 데 대해서는 좀 넓히는 문제를 철저히 국방부와 협의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교육



• 행복북구 Leader's 평생대학원 입학식



이승훈 의원(북현1·2동·검단·무태조아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먼저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인 엑스코 노선으로, 동대구역-경북대 북문-엑스코-검단들을 잇는 도시철도망 사업입니다. 예상 계획은 2026년 완공 목표로 총 사업비 7,600억원이 드는 사업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동체계를 가져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검단들 종합계획으로, 명칭은 금호 워터폴리스 사업입니다. 북구 유통단지과 경부고속도로 북편 검단들 일대 약 33만8천평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2017년말 부지 조성에 착수해 2020년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하나의 도심형 복합 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호강 하단마을 지역을 힐링 벨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변동 가람산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의 여가와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북구의 새로운 테마파크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금호 워터폴리스와 연계한다면 금호강 수변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며, 한 차원 높은 지역발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화천 정비로 2017년 이후 들어설 연경지구와 함께 지역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불노인복지관 힘찬대학 입학식



• 도시보건위원회 현장방문



이헌태 의원(북현1·2동·검단·무태조아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금호강 개발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홍수범람을 이유로 금호강 이 일대의 이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금호강 둔치가 물이 범람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범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물이 범람하는 한강둔치는 서울시 1000만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지역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대구경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홍의락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의원 20여 명이 대구경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이지만, 이 금호강 둔치 이용문제 해결에 대구경북 특별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금호강 둔치가 문화공연장과 수상 놀이시설, 수영장, 캠핑장 등이 있는 대구 최고의 명품 관광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집행부와의 정책간담회



• 제4차 푸른대구가꾸기 나무심기



황영만 의원(관음·읍내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지역구의 당면 현안 사업으로는 팔거천 하천 정비사업의 마지막 3단계 사업인 대동교에서 매남교까지 약 2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0년 완공 계획인 팔거천 재해 예방 사업과 팔거천의 수질 개선과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5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2019년도 사업완료 계획인 팔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고, 또 관음로에서 칠곡로 간, 대중금속고등학교에서 칠곡우방타운까지 약 860m 중에서 760m가 미개설 도로로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2018년도 완공 계획에 있는데 조금 늦어질 것 같아도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시 주민제안사업으로 현재 신청해놓은 사업인데, 관음동의 칠곡로 급료시장 쪽에 완충녹지에 산책로와 휴식 공간을 위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가산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설치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 사업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관음동 856번지 칠곡IC 옆 일대에 소금정지의 수변공원 조성하고 그 일대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건의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가지 크고 작은 현안 사업의 예산확보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미래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문파출소 개소식



• 북구 의성향우회 제10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윤은경 의원(동천·국우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본의원의 지역구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하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진학 무렵이 되면 우수한 학군을 찾아서 지역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지않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예산이 많은 학교에 골고루 효율적으로 배분돼서 북구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를 받고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자부심을 느끼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북구청소녀회관의 강북센터가 개소했는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아이들이 학업적인 면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진로교육 등 다양한 교내의 활동, 또 학부모 교육, 부모와 학생과의 관계형성 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 관문파출소 개소식



• 구청장 동방문(관음동·읍내동·동천동·국우동)



이영재 의원(동천·국우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먼저 동천동 4지구 농업기술원 후적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농업기술원이 2021년 상주로 이전하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에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더 이상 강북지역에 도시 개발이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내는 이런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지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 할 것 같고요. 또, 국우동 지역은 도남지 택지개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늦춰지면서 많은 우리 농민들과 지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이 어찌면 손 놓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국우동 주민들이 피해없이 도남지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또 우리 지역의 발전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북구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99%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간에 사람 냄새나는 이러한 동네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 농총지도자 연시총회 및 영농교육



• 대학생 봉사 동아리 의회 방문



김재용 의원(관문·태전1동)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지역구인 관문동과 태전1동은 도농복합지역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큰 현안들이 많습니다. 먼저 태전1동 현황을 살펴보면 보건대에서 한일아파트간 도로건설, 태전공원 정비, 도로확장, 폭포 설치, 화장실 설치, 그리고 최근 대형 트럭 차고지 지정 등이 있습니다. 특히 태전1동 발전을 위해서는 매천동 경계 안쪽의 그린벨트가 꼭 해제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대학이 2개 있어서 학생들이 버리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구청의 지속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관문동은 더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및 재건축 문제, 하중도 개발, 팔달교-서변동 간 도로건설, 금호지구 출장소 설치, 그리고 버스 정차 문제,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금호강 개발 등 아주 많습니다. 이 사업들은 대구시 및 북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 들입니다. 예산확보 및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들 하나가 되어 노력해야 됩니다. 주민들도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 2017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수상



• 구청장 동방문(관문동·태전1동·태전2동·구암동)



신 경 희 의원(비례대표)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우리 지역은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매천도매시장과 팔달-매천 -노곡-금호-사수를 잇는 대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아름다운 경관이 지역에서도 최고를 자랑합니다. 특히 금호 사수지역에 택지사업으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1만2000여 명의 인구로 신세대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혼 세대인 만큼 주민들의 교육열과 문화수준은 높은 반면, 고등학교의 필요성, 대중교통의 부족, 인구수에 비해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등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인구 2만2000명이 도래하는 2018년에 맞춰서 시 차원에서 통학·통근 시간대 배차간격 조정, 버스노선 신설, 도시철도 3호선 환승 등 거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 어르신 경로잔치



• 집행부와의 정책간담회



장 윤 영 의원(비례대표)

Mini Interview “지역의 현안은?”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너무 아파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폭력 문제, 음주 문제, 흡연 문제 이런 문제들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국가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강도 높은 부분으로 다가가서, 체험이라던지 교육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민하고 더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에게만 체험, 교육 이런 부분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함께 교육을 받고 함께 고민해나가고 이렇게 해나가야지만 이 심각한 문제들이 차츰차츰 풀려나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문제고 시간도 걸리는 문제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약한 힘이지만 작은 힘으로나마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교육 문제, 캠페인 문제, 사업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노력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부광어린이집 개원식



• 미니인터뷰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하병문 및 의장단은 1월 31일 북구의회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남성희 전 회장을 접견하고 '2017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북구의회 의장단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외받는 이웃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내기공무원 특별교육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하병문 및 북구의원은 3월 16일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대구 북구청 신규임용 공무원 36명과 함께 북구의회 바로알기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병문 의장 및 북구의원 일동은 공직의 첫발을 내딛은 신규공무원들이 북구의회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올바른 공직생활을 해나갈 것을 기원하였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01차 시도대표회 회의

대구북구의회(의장 하병문)는 4월 12일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제201차 정례회를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정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장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토의하였다.



관문파출소 개소식

4월 11일 대구 북구 한강로 103에서 관문파출소 신축 개소식이 열렸다. 하병문 북구의회 의장 및 북구의회 의원은 이날 개소식에 참석하여 관문파출소가 금호사수지역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난 치안수요를 처리하고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기원하였다.



북구청소년회관 강북센터 개소식

5월 13일 대구과학대학교 종합복지관 3층 아동청소년지도과 실습실에서 북구청소년회관 강북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하병문 의장 및 북구의회 의원들은 북구청소년회관 강북센터가 체험활동이나 진로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에 도움이 되는 장소가 되어줄 것을 기원하였다.



태전도서관 개관식

5월 19일 대구 북구 영송로 36-16에서 태전도서관 개소식이 열렸다. 하병문 북구의회 의장의 북구의원 일동은 행사에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과 품격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건립된 태전도서관의 개관을 축하하고 지속적인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육문화도시 북구 조성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북구 우리마을 교육나눔 발대식

5월 30일 대구 북구청에서 '2017년 북구 우리마을 교육나눔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 하병문 북구의회 의장 외 북구의원 일동이 참석하여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이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동체 상황에 적합한 특색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청소년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원하였다.



행복누리 북구 비엔날레

5월 31일 영진전문대학교 북현캠퍼스 백호체육관에서 '제2회 행복누리 북구 비엔날레'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하병문 북구의회 의장 및 북구의원 일동이 참석하여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날에 어르신과 대학생들이 같이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진 것을 축하하고 어르신들이 선보이는 프로그램을 관람객들과 함께 즐겼다.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시복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의회 방청·참관 안내

방 청

복구의회에서는 구민 여러분에게 회의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의회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간단한 절차에 따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 관

신청에 의하여 참관할 수 있는 장소는 본회의장·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입니다.
참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입니다.
다만, 일요일, 공휴일, 본회의 개의 중에는 참관할 수 없습니다.

신 청

복구의회 홈페이지(www.bukguocouncil.daegu.kr) 또는
전화신청(☎665-4031~5)을 통하여 구민 여러분께서
직접 방청신청이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간행물 편찬위원회

위원장 : 김준호
위 원 : 윤은경, 이상재, 이강열,
유병철, 이헌태, 신경희



모바일 홈페이지 안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대구 복구의회에서 제공하는
의회소식 및 의원소개, 의정활동 사진, 의회방송 다시
보기 등의 다양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대구시 복구의회를
검색하거나 아래의 QR코드를 포털사이트에서 코드
검색 또는 QR·바코드로 찍으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대구시
복구의회를 만나보세요!
모바일 홈페이지
http://www.bukguocouncil.daegu.kr/m